

南滄 孫晉泰의 歌集 轉寫와 『朝鮮古歌謠集』 편찬*

權純會**

|| 차례 ||

- I. 서론
- II. 時調 文學에 대한 관심과 歌集 轉寫 經緯
- III. 轉寫本의 주요 특징
- IV. 『朝鮮古歌謠集』의 편제와 특성
- V. 결론

【국문초록】

우리는 남창 손진태를 역사학자나 민속학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고전 시가 연구에도 남다른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본고는 歌集 轉寫와 『朝鮮古歌謠集』 편찬을 중심으로 南滄 孫晉泰의 고전 시가 연구 활동을 재조명하였다.

먼저 남창의 시조 문학에 대한 관심과 가집 전사 경위에 대해 살폈다. 남창은 시조를 민족사의 흐름과 같이하며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장르로 인식하고 이를 일본인들에게 소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던 중 1925년부터 동양문고를 드나들면서 일본으로 유출된 고시조 문헌을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얻었고 이은상과 함께 1927년 6월에서 1928년 5월 사이에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던 歌集을 집중적으로 전사하였다. 우리가 남창의 가집 전사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고시조 연구에 요긴하게 활용되는 이 가집들이 일본으로 유출된 후 남창의 전사에 의해 비로소 국내에 알려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음으로 轉寫本의 주요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여창가요록』의 경우 원본에 있던 연음표를 붉은색으로 전사하였고, 면수와 행수까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송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7-322-A00061).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장사가』는 가사 작품의 경우 『고금가곡』에 수록된 판본과 대교하여 그 결과를 행간에 표시하였다. 『고금가곡』은 漢詩 辭賦와 과체시를 수록한 부분을 생략하고 『풍아별곡』부터 전사했던 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문학의 핵심적 가치를 순국문문학에서 찾으려 했던 남창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1929년에 편찬된 『朝鮮古歌謠集』은 전사한 가집을 바탕으로 편찬한 고시조 選集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고전시가의 정수인 시조를 일본인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본어로 번역해서 실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朝鮮古歌謠集』은 전사한 가집에 수록되어 있던 시조 가운데 558수를 선별하여 장가(사설시조)와 단가(평시조)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장가와 무명씨 작품을 전면에 배치한 점이 이채롭다. 이는 시조가 가지고 있는 조선적인 정서와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이다. 요컨대 남창은 조선의 국민 문학으로서의 시조를 교양독서물 형태로 재구성하여 가곡의 선율에 익숙하지 않던 일본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선고가요집』을 편찬했던 것이다.

주제어 : 남창(南滄), 손진태(孫晉泰), 가집(歌集), 전사(轉寫), 조선고가요집(朝鮮古歌謠集), 시조(時調)

I. 서론

본고의 목표는 歌集 轉寫와 『朝鮮古歌謠集』 편찬을 중심으로 南滄 孫晉泰(1900-?)의 고전 시가 연구 활동을 재조명하는데 있다. 남창의 학문 활동에 대해서는 민속학과 역사 연구에 대해서만 집중 조명되었을 뿐 고전 시가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남창은 우리의 역사나 민속, 설화뿐만 아니라 시가 연구에도 남다른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¹⁾ 남창은 1926년 5월 「詩調와 詩調에 표현된 한국사람」이라

1) 필자는 『고금가곡』의 전사 과정에서의 南滄 孫晉泰의 역할에 주목하고 초창기 고전 시가 연구자로서의 남창의 학문 활동에 대한 재조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권순희, 「『古今歌曲』의 원본 발굴과 轉寫 경로」, 『우리어문연구』 제36집, 우리어문학회, 2009.

는 논문을 통해 시조의 기원과 특성, 그리고 시조에 투영된 민족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²⁾ 또한 前間恭作이 손진태에게 보낸 엽서와 편지에서도 우리 시가 문학에 대한 남창의 남다른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엽서와 편지는 대부분 『朝鮮古歌謠集』 편찬과 관련하여 고가요의 문헌, 작자, 주석, 번역 등에 대해 남창이 前間恭作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들이다.³⁾

남창의 고전시가 연구 활동의 핵심은 가집 전사와 『조선고가요집』 편찬이다. 남창은 1927년 6월에서 1928년 5월 사이에 일본 동양문고와 前間恭作, 淺見倫太郎이 소장하고 있던 歌集을⁴⁾ 집중적으로 전사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남창문고에 소장된 『가곡원류』와 『남훈태평가』, 『송강가사』, 『가사육중』, 『고금가곡』, 『여창가요록』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사육중』, 『고금가곡』은 유일본을 전사하였다. 또한 『여창가요록』의 母本은 이본 가운데 善本이다. 그리고 동양문고본 『가곡원류』도 이본으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남창의 가집 전사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 무엇인가? 무엇보다 현재 고시조 연구에 요긴하게 활용되는 이 가집들이 일본으로 유출된 후 남창의 전사에 의해 비로소 국내에 알려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아직까지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그간의 고시조 문헌 연구에서도 남창의 전사본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1929년에 편찬된 『朝鮮古歌謠集』은 전사한 가집을 바탕으로 편찬한 고시조 選集이다. 전사본에서 시조 558수를 선별하여 장가(사설시조)와 단가

2) 손진태, 「詩調와 詩調에 표현된 한국사람」, 『孫晉泰先生全集』 6, 태학사, 1981, pp.527-562.

3) 손진태 저·최광식 편,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2-우리의 민속과 역사』,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pp.102-157.

4) 이들은 모두 淺見倫太郎과 前間恭作이 한국에 있을 때 수집한 자료이다.

(평시조)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제별 작가별 체계에 맞추어 새롭게 편집하였다. 『朝鮮古歌謠集』은 무엇보다도 남창의 시조 문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최남선의 『時調類聚』(1928)와 더불어 초창기 국학자들에 의해 교양독서물 형태로 편찬한 時調選集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전시가의 정수인 시조를 일본인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본어로 번역해서 실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II. 時調 文學에 대한 관심과 歌集 轉寫 經緯

민속, 설화, 민요, 무가 등을 수집하고 연구했던 남창이 時調에도 관심을 두었을 것은 자명하다. 먼저 시조에 대한 남창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1926년에 발표한 「詩調와 詩調에 표현된 한국사람」에는 시조에 대한 남창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남창은 이 글에서 ‘時調’를 ‘詩調’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그 발생 시기를 삼국말엽이나 혹은 신라말기부터 시조가 있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고려 초기에 시조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崔沖·禹倬과 같은 고려시대 작가의 작품이 존재한다는 점과 시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자 불명의 작품 중에서도 고려시대의 산물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⁵⁾

이러한 남창의 견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시조 문학에 대한 남창의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무엇보다 시조의 발생 시기를 고려 초로 설정한 것은 시조가 천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르로 민족사의 흐름과 같이하며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장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5) 손진태, 앞의 논문, pp.528-537.

남창은 시조 문학을 오직 한국 사람만이 가진 넓은 세계를 통하여 다만 하나 밖에 없는 보물이라고 평가하고 이 보물은 오로지 한국 사람만의 보물이 아니요 전 인류의 역사적 보물이며 장래에도 반드시 전 인류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시조 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무슨 문학을 가졌는가라고 반문하였다.⁶⁾ 이는 시조를 조선의 국민문학으로 인식했던 최남선 등 초창기 시조 문학 연구자들의 견해와⁷⁾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남창 역시 시조를 우리의 민족성이 가장 잘 발현된 대표적인 국민문학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남창의 가집 전사와 『朝鮮古歌謠集』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朝鮮古歌謠集』의 「序說」에 의하면 그는 우리 선조가 남긴 大寶物의 하나로 조선문학사상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조를 적으나마 일본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을 와세다대학의 第一高等學院에 재학 중이던 1922년 전부터 품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窪田空穂 선생에게 제출해야만 하는 과제에 대해 궁리하다가 조선의 古歌에 대해서 무언가를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한번 번역하기 쉬운 시조를 열 수 쪽 번역하고 여기에 사건을 조금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학기 초 그 과제가 그에게 되돌아왔을 때 끝에 空穂 선생의 평이 써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번역은 不味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조직적으로 소개해볼 의향은 없는가? 그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 남창은 『朝鮮古歌謠集』 편찬이 空穂 선생의 이 말에 자극 받은 데서 촉발된 것이라고⁸⁾ 밝혔다. 남창의 고시조에 대한 관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심은 와세다대학을 다니던 1925년부터 동양문고를 드나들면

6) 손진태, 앞의 논문, pp.537-562.

7) 최남선, 「조선국민문학으로의 시조」, 『조선문단』, 제16호, 1926.5.

8) 손진태, 「序說」, 『朝鮮古歌謠集』, 刀江書院, 1929, pp.4-5.

서 보다 구체화된다.⁹⁾ 이를 계기로 그는 동양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던 고 시조 문헌을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얻었고 당시 와세다대학에 청강생으로 와 있던 李殷相(1903-1982)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집을 전사하기 시작한다.

먼저 손진태는 1927년 6월 이은상과 함께 동양문고 소장 『가곡원류』와 『남훈태평가』를 전사한 것을 시작으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집을 집중적으로 전사하였다. 1928년 1월 25일에는 前間恭作 소장 『송강가사』를 전사하였다. 1928년 2월 淺見倫太郎 소장 『가사육중』을 전사한 후 3월에는 이은상에게 淺見倫太郎 소장 『고금가곡』을 轉寫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해 5월에 다시 前間恭作 소장 『여창가요록』을 전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손진태는 가집 전사 과정에서 朝鮮의 古典籍에 해박했던 前間恭作에게 자주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을 구했던 내용은 가집의 서지적 특성, 작가, 어휘 등이었던 바 前間恭作에게 『고금가곡』과 『가사육중』의 해제를 부탁하거나 표제가 결락된 원본의 제목을 그와 상의하여 ‘고금가곡’과 ‘가사육중’이라 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그렇다면 남창이 가집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전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朝鮮古歌謠集』에 수록할 원전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었다. 시조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던 그에서 번역 작품을 선별할 원전 자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가집 전사가 1929년 『朝鮮古歌謠集』 간행에 앞서 1927년에서 192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유이다. 남창은 이를 통해 대략 2천여 수의 시조 작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 『朝鮮古歌謠集』 수록 시조는 이 가운데 4분의 1만 선별한 것이다.¹⁰⁾

9) 한편 그는 1930년에서 1934년 사이에 동양문고의 직원으로 근무한다. 최광식,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 활동-새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p.22.

나아가 그는 전사본을 토대로 고시조를 집성한 책을 간행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前間恭作이 남창에게 보낸 답신을 보면 “『歌曲大全』의 일을 종종 보내주어 고맙다”라는¹¹⁾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남창은 수집된 시조 가운데 4분의 1만 『朝鮮古歌謠集』 편찬에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비록 『歌曲大全』의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남창이 전사본을 바탕으로 『朝鮮古歌謠集』 이외에 고시조 집성본을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창의 가집 전사가 이러한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남창은 일본으로 유출된 이 가집들이 매우 긴요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전사하여 국내로 가져가 고시조 연구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남창은 이들을 전사한 후 완전한 가집 형태로 製冊하여 소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금가곡』과 『여창가요록』, 『가사육중』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부는 국내에서 재전사되어 시조 연구에 활용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정황을 말해준다. 현재 가람문고에 소장된 『고금가곡』, 『여창가요록』, 『가사육중』과 도남문고에 소장된 『고금가곡』, 『여창가요록』은 바로 남창의 전사본을 재전사한 것이다.¹²⁾

Ⅲ. 轉寫本의 주요 특징

남창이 전사한 가집 가운데 현재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가곡원류』와 『남훈태평가』, 『송강가사』, 『가사육중』, 『고금가곡』, 『여창가요록』이다. 이

10) 손진태, 앞의 책, p.30.

11) 손진태 저·최광식 편, 앞의 책, p.126 ; 최광식, 『『손진태 유고집』의 내용과 성격』, 『한국사학보』 제30호, 고려사학회, 2008, pp.257-258.

12) 『고금가곡』의 전사 경로에 대해서는 권순화, 앞의 논문, pp.18-25 참조.

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남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남창이 『조선고가요집』 편찬에 활용했던 동양문고 소장 『歌謠』도 轉寫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전사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남창문고에 소장된 6종의 전사본의 주요 특징을 개관하기로 한다.

『가곡원류』는 동양문고본을 전사한 것이다. 애초에 前間恭作이 소장하던 것이다. 필사기에 따르면 1927년 6월 동양문고에서 이은상이 필사하였다.¹³⁾ 표지를 제외한 총 면수는 42장이다. 사실 위에는 ‘△’를 하였다. 수록 악곡 목록은 다음과 같다.

羽調 初中大葉 / 長大葉 / 三中大葉 / 界面調 初中大葉 / 二中大葉 / 三中大葉 / 後庭花 / 臺 / 二後庭花(今失其調詞說不上) / 羽調 初數大葉 / 二數大葉 / 中學 / 平舉 / 頭舉 / 三數大葉 / 騷鋒 / 栗糖數大葉 / 界面調 初數大葉 / 二數大葉 / 中學 / 平舉 / 頭舉 / 三數大葉

이상과 같이 창곡과 사설은 界面 三數大葉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또한 연음표도 붙어 있지 않은데 이는 동양문고본을 충실하게 전사한 결과이다.¹⁴⁾ 한편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가곡원류』(서울대본)은 동양문고 소장본을 전사한 것이다. 이 판본은 卷末에 나와 있는 필사기를¹⁵⁾ 통해 1929년 1월에 전사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사 시기가 남창본보다 7개월 정도 늦다. 다만 이 전사본이 동양문고 소장 원본을 전사하였는지, 아니면 남창본을 재전사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필사기로 보아 『南薰太平歌』는 『가곡원류』와 함께 1927년 6월 동양문고에서 이은상에 의해 전사된 것이다.¹⁶⁾ 동양문고에 소장된 것으로 前間

13) “一九二七年六月 於日本東洋文庫 李殷相 寫”

14) 동양문고본 『가곡원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황인원, 「『가곡원류』의 이본 계열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pp.45-47.

15) “昭和四年一月 所藏 本ヨリ謄寫ス”

恭作이 京城에 재직할 때 복사한 것이라고 한다. 1면 초두에 『남훈태평가』 여러 판본에 보이는 악곡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南薰太平歌’라는 가집명과 함께 ‘낙시묘’, ‘룽’, ‘편’, ‘송’, ‘소용’, ‘우조’, ‘후정화’, ‘계면’, ‘만수대엽’, ‘원사청’, ‘잡가’, ‘가사’가 적혀 있고 이어 시조 222수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잡가편에는 「쇼춘향가」, 「미화가」, 「빅구스」를, 가사편에는 「춘면곡」, 「상사별곡」, 「쳐사가」, 「어부사」를 실었다. 刊記는 “癸亥石洞新刊”으로 전사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남훈태평가』의 여타 판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남훈태평가』 단권본에 비해 수록 작품이 두 수 적다.¹⁷⁾ 전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母本이 그러했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필자가 확인한 『남훈태평가』의 판본이 모두 순국문으로 표기되었음에 비해 이 전사본은 잡가와 가사는 제외하고 시조만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여기서 우리는 국한문 혼용이 전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남창은 동양문고에 소장된 『남훈태평가』 寫本이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⁸⁾

한편 27, 30, 35, 36, 41, 42, 43, 44, 45, 47, 51, 52, 55, 56, 57, 59, 61, 62, 77, 80, 85, 86, 87, 89, 118, 141, 150, 151, 152, 153, 209, 210, 211, 212, 216번 위에는 ‘×’ 를 하였고, 69, 107, 179, 184, 185, 187, 190, 194, 195, 196번 위에는 ‘譯’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193번에는 두 가지 표시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46번 위에는 ‘注意’라고 적혀

16) 필사가 『가곡원류』와 같다.

17) 누락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인의로 그물 밋서 초한 건곤 후려니니 / 흥나흔 장양이요 또 하나흔 혼신이라 / 아마도 부절낭도는 소하런가” <남태 103>

“턱산이 늙다 호되 흥날 아리 피이로다 / 올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러 입싼마는 / 사람이 제 아니 올르고 피만늙다” <남태 148>

18) 손진태, 「序說」, 『朝鮮古歌謠集』, p.26.

있다. 이 표시는 무엇인가? 『朝鮮古歌謠集』의 母本으로 활용했던 『청구영언』(육당본 등사본)에도 같은 표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朝鮮古歌謠集』에 수록할 시조를 선별했거나 신출 작품을 판단했던 흔적으로 보인다.

필사기에 따르면 『松江歌辭』는 前間恭作이 소장하고 있던 판본을 빌려 1928년 1월 22일 동경에서 전사하였다.¹⁹⁾ 무엇보다 卷頭에 長歌(卷上)와 短歌(卷下)로 나누어 索引을 붙인 점이 이채롭다. 특히 短歌(卷下)의 경우 시조 初章 색인을 수록한 바 이는 오늘날 간행되는 시조선집의 색인과 그 형태가 같다. 색인의 제목 밑에 “私製”라고 표시한 점으로 미루어 이는 원본에 없던 것을 전사 과정에서 남창이 손수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 확실하다.

前間恭作이 소장했던 원본은 성주본의 寫本이다.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장진주가」와 시조 78수, 그리고 「玄孫鄭滄書」와 「五代孫鄭觀河追記」가 수록되어 있다. 전사 후 『고금가곡』에 수록된 『松江歌辭』와 對校하였고 長歌(卷上)에는 그 결과를 행간에 표시한 점이 특이하다. 『고금가곡』에 수록된 『松江歌辭』는 李選本이다.

『가사육종』은 淺見倫太郎 소장본을 빌려 1928년 2월에 전사한 것이다. 표제는 ‘歌辭六種(失名擬題)’라고 적혀 있는 바²⁰⁾ 이는 『고금가곡』과 같이 원본의 제목이 결락된 것을 前間恭作과 상의 후 붙인 假稱이다.²¹⁾ 前間恭作이 日文으로 작성한 해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해제는 『고금가곡』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1928년에 작성된 것이다. 첫 면에는 목차와 필사기를 적었다.

19) “一九二八年一月二十二日 於東京 得前間恭作氏所藏板本而復寫之”

20) 전사본의 표지에는 ‘歌辭六種’이라고 적혀있으나 前間恭作의 해제나 『조선고가요집』 「서설」에는 ‘歌詞六種’으로 나온다.

21) 손진태, 앞의 책, p.24.

수록된 작품은 「玉樓宴歌」, 「農家月令歌」, 「春眠曲」, 「江村別曲」(車天輅), 「漁父辭 九章」(李賢輔), 「老人歌」이다. 특히 「農家月令歌」에는 어휘를 풀이 한 附箋을 여러 군데 붙였다. 일본어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前間恭作에게 자문했던 결과를 그대로 붙인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특히 남창은 「農家月令歌」를 「朝鮮 古歌中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하고²²⁾ 『조선고가요집』에 「還山別曲」, 「白鷗詞」와 함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한편 남창은 時調에 비해 가사의 가치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은 듯하다. 그는 『조선고가요집』에 「환산별곡」, 「백구사」, 「농가월령가」 3편을 부록으로 수록하면서 가사는 대부분 漢文 취향이 농후하고 街學的이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다지 맘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가사육중』을 전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朝鮮 학계에 아직 소개되지 않아 누구도 알지 못하는 珍本이라고 판단하여²³⁾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월령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가사육중』을 전사한 계기로 작용한 듯하다. 바로 남창은 1928년 초에 이 노래를 발견하고 번역해서 잡지 『東洋』 1928년 8-9양월 호에 게재한 바 있다.²⁴⁾ 남창이 이처럼 「농가월령가」를 특별히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작품이 농가 생활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어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잘 드러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금가곡』은 1928년 3월 淺見倫太郎 소장본을 빌려 이은상이 전사한 것이다.²⁵⁾ 표지에는 「古今歌曲集(失名擬題)」이라고 적혀 있으나 원본에는 제목이 결락되어 있던 것이다. 「古今歌曲」이라는 假稱은 남창이 編抄者の

22) 손진태, 앞의 책, 같은 곳.

23) 손진태, 앞의 책, 같은 곳.

24) 손진태, 「附錄歌詞三種に就いて」, 『朝鮮古歌謠集』, p.460.

25) 표지를 보면 「古今歌曲集(失名擬題)」와 함께 “於東京 得淺見倫太郎氏所藏寫本而寫之”, “一九二八年三月 李殷相君寫”라는 筆寫記가 보인다.

자작 시조 “늘거지니 벗이 업고 눈 어두워 글 못 볼식 / 古今歌曲을 모도와 쓰는 뜻은 / 여귀나 흥을 브쳐 消日코저 호노라”에서 취하여 前間恭作과 相談 후에 부여한 것이다.²⁶⁾ 卷頭에 前間恭作이 작성한 해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고금가곡』 원본을 대상으로 작성한 유일한 해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남창은 『가사육중』과 『고금가곡』을 전사한 후 이 가집의 특성에 대해 前間恭作에게 자문을 구했던 바, 前間恭作은 그해 4월에 해제를 작성하여 남창에게 주었고 남창은 이를 『고금가곡』 전사본과 같이 묶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해제는 지질과 필체가 본문 전사 부분과 달라 본문 전사 후 합철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본문이 펜으로 전사된 반면 해제는 油紙에 철필로 인쇄되어 있다.

이 밖에 사설 위에는 ‘△’를 하였고 卷末의 필사 간기는 원본과 같이 “甲申春 ”으로 전사하였다. 그리고 「北邊三快」, 「西塞三快」, 「平生三快」의 저자를 “徐宗順”으로 「楓岳石刻」, 「金水亭 石刻」의 저자를 “楊蓬?”로 파악했다. 이 밖에 短歌二十目の 序頭에 수록되어 있던 樂調에 관한 評語도 생략되었다.

남창본 『고금가곡』은 원본의 完帙을 전사한 것이 아니다. 국문시가를 중심으로 취사선택하였다. 가집 앞부분에 수록된 漢詩 辭賦나 科體詩를 생략하고 「풍아별곡」부터 전사하였다. 그리고 「송강가사」와 「춘면곡」은 제목과 함께 원문은 생략한다는 기록만 남겼다.

남창본의 目次 轉寫 부분을 보면 원본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적은 후 한시 辭賦 목록이 끝나는 「赤壁賦」와 과체시가 끝나는 「臥念少游言」뒤에 “以上全文略”이라고 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 「星山別曲」, 「將進酒」를 묶어 “原文省略”이라고 적고, 다시 「春眠曲」에 “原文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본문을 전사할 작

26) 손진태, 「序說」, 『朝鮮古歌謠集』, p.22.

품목록 위에는 朱印으로 ‘○’를 하였다. 이 기록은 유심히 살펴보면 본문에 앞서 목차를 전사한 후 본문의 전사 범위와 대상 작품을 선별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된다. 요컨대 남창본 『고금가곡』은 애초에 국문시가를 중심으로 기획전사하였던 것이다.²⁷⁾

『女唱歌謠錄』은 필사기에 1928년 5월 동경에서 前間恭作氏 所藏寫本을 얻어 필사한 것으로²⁸⁾ 나와 있다. 이 판본은 현재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표지를 제외한 총 면수는 32장이다. 182수가 수록되었다. 수록 악곡 목록은 다음과 같다.

우도중한입(1)²⁹⁾ / 계면중한입(1) / 후정화(1) / 더(1) / 장진주(1) / 더(1)
 / 우도누르논자진한입(14) / 우도중허리드논자진한입(10) / 우도 막드논자진
 한입(6) / 우도존자진한입(12) / 밤엇자진한입(2) / 계면긴자진한입(18) / 중
 허리드논자진한입(23) / 막드논자진한입(20) / 존자진한입(11) / 룡(14) / 우
 락(17) / 계락(13) / 편자진한입(15) / 계락빠진 것(1)

사설 전문을 순국문으로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악곡명도 순우리말식 명칭을 취하였다. 원본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충실하게 전사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원본에 있던 연음표를 붉은 펜으로 그대로 옮겨 적었다. 원본에는 중대엽을 제외하고 모든 사설에 연음표가 붙어 있다. 마지막에 ‘계락’에 빠진 사설 한 수를 추록한 것도 같다. 또한 각 면 당 배치된 행수도 원본과 같다. 뿐만 아니라 원본 卷末의 “庚午仲春望間愚泉試”라는 刊記를 보면 ‘雪峰’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愚泉’을 다시 쓴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 역시 그대로 전사하였다.

27) 남창이 전사한 『고금가곡』에 대해서는 허영진, 「남창본 『고금가곡집』의 실증적 재조명」, 『국제어문』 31집, 국제어문학회, 2004와 권순희, 앞의 논문 참조.

28) “一九二八年五月 於東京 得前間恭作氏所藏寫本而複寫之”

29) ()의 숫자는 수록 작품 수.

현재 『女唱歌謠錄』의 이본은 동양문고 소장본과 이해구 소장본, 이화여대 소장본, 가람문소 소장본, 도남문고 소장본, 남창문고 소장본 등이 있다.³⁰⁾ 이 가운데 이화여대 소장본은 분실되었고 남창문고 소장본, 가람문소 소장본, 도남문고 소장본은 동양문고본의 전사본이다. 이해구 소장본은 “계미늑월망간서정진주명기”라는 刊記로 보아 1883년에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양문고 소장본은 1870년에 필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나 창곡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 『女唱歌謠錄』의 善本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창문고 소장 전사본의 가치는 무엇보다 이를 충실하게 전사하여 국내에 소개했다는 데 있다. 동양문고본 『女唱歌謠錄』은 남창의 전사에 의해 비로소 그 존재가 국내에 알려진 셈이다. 이후 남창이 전사한 『女唱歌謠錄』은 『고금가곡』과 같이 가람본과 도남본으로 재전사되어 국내에 소통되었다.

IV. 『朝鮮古歌謠集』의 편제와 특성

남창이 『朝鮮古歌謠集』을 편찬한 직접적인 계기는 이미 확인한 바와 같다. 이외에도 남창은 1922년 여름방학에 시조 2백여 수를 직역한 후 空穗선생을 찾아가 자문을 받고 번역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³¹⁾

「序說」에서 밝힌 바 『朝鮮古歌謠集』의 母本은 『송강가사』(前間恭作 소장), 『고금가곡』(淺見倫太郎 소장), 『가사육중』(淺見倫太郎 소장), 『가곡원류』(동양문고 소장), 『청구영언』(前間恭作 소장, 육당본 謄寫本), 『남훈태평가』(동양문고 소장), 『여창가요록』(前間恭作 소장), 『가요』(동양문

30) 신경숙, 『女唱歌謠錄』 해제 및 영인, 『한국음악사학보』 제16권, 한국음악사학회, 1996, p.253.

31) 손진태, 앞의 책, p.5.

고 소장) 등이다. 이 가운데 『송강가사』, 『고금가곡』, 『가사육중』, 『가곡원류』, 『남훈대평가』, 『여창가요록』 등은 원본을 전사한 것이다. 『청구영언』은 延禧專門學校 學生들이 육당본을 謄寫한 판본이다. 이 역시 현재 남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바 이는 前間恭作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남창문고에 소장된 경위는 파악되지 않는다. 아마도 復本을 소장하고 있던 前間恭作이 한 권을 남창에게 넘겨 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가운데 남창이 『조선고가요집』 편찬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가집은 『청구영언』이다. 상당수의 작품을 『청구영언』에서 선별하고 여타 전사본에서 나머지 작품을 선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朝鮮古歌謠集』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 편제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朝鮮古歌謠集』에는 총 558수의 시조와 가사 3수가 수록되어 있다. 長歌部에는 사설시조 135수를, 短歌部에는 평시조 423수를 수록하였다. 원문은 빼고 일본어로 번역한 작품만 수록하였다. 『朝鮮古歌謠集』의 第次는 다음과 같다.

- ① 序文
- ② 序說
- ③ 目次
- ④ 長歌篇(第一部)
 - 行事(3)³²⁾ / 諧謔(27) / 好色(18) / 男女(14) / 生活(8) / 其他(5)
- ⑤ 長歌篇(第二部)
 - 諧謔(22) / 男女(15) / 好色(10) / 諷刺·慨世(6) / 其他(7)
- ⑥ 短歌篇(第一部)
 - 諧謔(25) / 譚飲(26) / 艷情(16) / 別恨(15) / 待人(12) / 戀苦(17) / 好色(16) / 嘆老(12) / 興趣(24) / 閑適(15) / 諷刺(27) / 其他(6)
- ⑦ 短歌篇(第二部)

32) 이하 第次의 ()의 숫자는 수록 작품 수.

乙巴素(1) / 成忠(2) / 崔冲(2) / 禹倬(2) / 成汝完(1) / 李穡(1) / 鄭夢周의 母(1) / 鄭夢周(1) / 趙浚(1) / 鄭道傳(1) / 太宗大王(1) / 金宗瑞(2) / 成三問(2) / 柳誠源(1) / 河緯地(1) / 元昊(1) / 南怡(1) / 王邦衍(1) / 成宗大王(1) / 李稷(1) / 李澤(1) / 宋麟壽(1) / 李賢輔(6) / 柳希齡(1) / 安挺(2) / 洪春卿(1) / 申光漢(1) / 徐敬德(1) / 趙昱(1) / 宋寅(2) / 宋純(1) / 曹植(2) / 成運(1) / 鄭澈(19) / 李滉(2) / 柳自新(1) / 洪暹(1) / 林悌(2) / 趙憲(1) / 金瑬(1) / 韓濩(1) / 李德馨(1) / 李恒福(2) / 楊士彦(1) / 金應淵(1) / 成渾(1) / 徐益(2) / 李元翼(1) / 朴仁老(3) / 趙存性(2) / 李舜臣(1) / 洪翼漢(1) / 鄭述(1) / 趙續韓(1) / 鄭太和(1) / 林慶業(1) / 金尙容(3) / 金尙憲(2) / 李明漢(5) / 張晚(1) / 洪瑞鳳(1) / 申欽(4) / 鄭忠信(1) / 孝宗大王(3) / 宋時烈(1) / 朗原君(1) / 金埴(1) / 金光煜(5) / 許珽(1) / 鄭斗卿(1) / 李浣(2) / 姜栢年(1) / 肅宗大王(2) / 金昌翁(1) / 金昌業(2) / 朱義植(5) / 金裕器(4) / 朴泰輔(1) / 張鵬翼(1) / 柳赫然(1) / 申靖夏(1) / 尹斗緒(1) / 濡川君(1) / 金三賢(2) / 李潏(1) / 南九萬(1) / 具志禎(1) / 趙顯命(1) / 金尙玉(1) / 朴英秀(3) / 李廷蓋(7) / 金煥(3) / 李象斗(1) / 朴孝寬(7) / 金敏淳(3)

⑧ 短歌篇(第三部)

申喜文(4) / 金時慶(1) / 吳擎華(1) / 李仲樂(1) / 趙慶濂(1) / 宋宗元(6) / 任義直(4) / 安玟英(4) / 眞伊(4) / 松伊(1) / 梅花(1) / 桂娘(1) / 一宮女(1) / 求之(1) / 笑春風(1) / 寒雨(1) / 明玉(1)

⑨ 附錄 一

還山別曲 / 白鷗詞 / 農家月令歌

⑩ 附錄 二

作家略傳 / 諸王在位年表

⑪ 跋

①에는 窪田空穂, 前間恭作, 津田左右吉의 序文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前間恭作의 서문에는 남창이 『朝鮮古歌謠集』을 편찬하면서 주요 문제

를 相談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前間恭作은 남창이 번역한 원고를 최종적으로 監修한 바 있다. 한편 서문 앞에는 『女唱歌謠錄』과 『가곡원류』의 원본 사진을 한 장씩 수록하고 설명을 붙였다.

②에서는 『朝鮮古歌謠集』의 편찬 방향을 밝혔다. 譯語, 名稱, 및 歌種의 선택과 原歌의 型式, 原本 자료의 선택, 사실의 배치, 譯歌의 量과 質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밝혀 놓았다.

④-⑧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朝鮮古歌謠集』의 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사실시조와 평시조를 長歌와 短歌部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창은 長歌와 短歌로 구분하여 수록한 이유에 대해 “시조는 聲曲의 체계에 의해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 인 데 일반 讀者들은 이 음악적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시조를 장가와 단가로 구분하여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장가는 노래의 형태가 긴 것, 단가는 노래의 형태가 짧은 것을 가리키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구분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중간 형태도 있지만 독자들의 혼란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³³⁾ 이 분류체계가 가곡의 선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讀者, 특히 일본인 독자들을 고려한 작품 배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일체의 전례를 깨고 최초로 장가(사설시조)와 무명씨 작품을 전면 에 배치하였다는 점이 이채롭다. 장가(사설시조)를 단가 앞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단가는 다시 무명씨, 생몰 연대가 확실한 기명 작가의 작품, 생몰연대를 알 수 없는 작가의 작품과 妓女 작품 순으로 배열하였다. 가집은 창곡의 순서에 따라 사설을 배치하기 때문에 사설시조는 가집의 후반부에 배치 되는 것이 통례이다. 내용별 분류 방식을 선택한 『고금가곡』에도 「만황청류」는 가집의 후반부에 두었다. 무명씨 작품의 경우도 통상 二數大葉 내에

33) 손진태, 앞의 책, pp.17-18.

서 ‘列聖御製’ → ‘麗末’ → ‘本朝’ → ‘歌客’ → ‘妓女’ → ‘年代欠考’ 다음에 배치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長歌篇에는 135수의 사설시조를 수록하였다. 第一部에는 75수, 第二部에는 60수가 수록되어 있다. 第一部에는 사설시조 가운데서도 사실이 긴 작품을 배치하였고, 第二部에는 이른바 ‘엇시조’로 분류했던 中型의 노래들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각 사설에는 “夕飯を早目にしまひ”, “犬の歌” 등의 제목이 붙어 있다. 이는 원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창이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내용 가운데서 취하여 새롭게 부여한 것이다. 長歌篇 앞에 “題は私案”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일부 작품은 주석을 붙였다.

본문에는 사실만 수록하였지만 목차를 참조하면 각 영역은 다시 주제별로 분류하여 사설을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第一部는 ‘行事’, ‘諧謔’, ‘好色’, ‘男女’, ‘生活’, ‘其他’, 총 6개의 주제 영역으로, 第二部는 ‘諧謔’, ‘男女’, ‘好色’, ‘諷刺・慨世’, ‘其他’, 총 5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다만 이 주제 항목들은 본문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목차에만 제시하였다.

短歌篇은 다시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第一部에는 무명씨 작품 211수를 수록하였다. 이들은 다시 ‘諧謔’, ‘讌飲’, ‘艷情’, ‘別恨’, ‘待人’, ‘戀苦’, ‘好色’, ‘嘆老’, ‘興趣’, ‘閑適’, ‘諷刺’, ‘其他’, 총 12항목의 주제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장가와 마찬가지로 이 항목들은 본문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목차에만 제시하였다. 특히 이 주제 항목은 내용별 분류 가집인 『고금가곡』의 단가 분류 체계를 참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短歌篇 第二部에는 생몰 연대가 확실한 기명 작가 95인의 작품 178수를 연대순으로 수록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은 주로 『청구연언』과 『가곡원류』에서 선별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해동가요』 이후에 간행된 가집 가운데 二數大葉의 경우 대개 ‘列聖御製’ → ‘麗末’ → ‘本朝’ → ‘歌客’ → ‘妓女’ → ‘年代欠考’ → ‘無名氏’ 순으로 작가를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따로 두지 않고 모든 작가를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다. 그리하여 역대 왕들의 작품도 연대순에 따라 사대부 작가의 작품과 나란히 수록된 점이 이채롭다.

작품 수록 양상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한 국면이 포착된다. 먼저 李珣과 尹善道の 작품이 한 수도 수록되지 않았다. 반면에 鄭澈의 작품이 19수나 수록되었다. 1인당 1-7수 내외의 작품이 수록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특이한 양상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전사했던 『송강가사』 성주본에 수록되어 있던 시조를 대거 채택한 결과로 여겨진다.

短歌篇 第三部는 생물연대를 알 수 없는 작가의 작품과 妓女 작품 34수를 수록하였다. 이 가운데 李仲樂은 李仲集의 誤記로 판단된다. 여기서 수록된 ‘뉘라셔’는 『청구영언』(육당본)에만 ‘李仲樂’으로 나올 뿐 다른 가집에는 모두 ‘李仲集’으로 표기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손진태가 전례를 깨고 長歌와 무명씨 작품을 전면 배치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다른 가집과 구별되는 『조선고가요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창은 그 이유를 長歌나 시대, 작가 공히 불명인 작품은 대부분 俗謠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들 가운데 중국적 사상과 감정에 물들지 않은 조선 고유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배치가 시조가 가지고 있는 조선적인 정서와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였다. 남창은 이즈음 동요와 민요, 그리고 민속학 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22년 동래, 부산에서 수집한 「영감외그래」 등의 동요, 「정기가」와 「상여 노래」 등 민요 가사를 수록한 노트가 남아 있다. 그리고 1927년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민속학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한다.³⁴⁾ 장가와 무명씨 작품에 대한 남창의 평가는

34) 최광식,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 활동-새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pp.29-30.

이러한 관심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고가요집』을 관통하는 선집 방향이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조선고가요집』에 수록된 시조는 장가 135수, 단가 423수 도합 558수이다. 이는 수집한 原歌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 남창은 수록 작품의 수량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록할 가치가 있는 작품은 거의 빠짐없이 선택해서 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조선 고가의 대체적 경향은 소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³⁵⁾

그렇다면 남창이 말하는 수록할 가치가 있는 작품의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무엇인가? 남창은 원래 “조선의 고가 가운데 한문 취향이 뿌리 깊어 한시에 조선의 따를 붙인 것, 중국의 인물이나 배경을 중심으로 한 것, 唐詩의 모작 등은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 하등 창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시조를 역사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것들을 버릴 수 없겠지만 본서는 조선인의 본래의 것을 일반의 일본인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選譯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노래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조선인다운 생각이나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노래를 대부분 선택해서 실었다”고 밝혔다.³⁶⁾ 조선적인 정서와 가치를 노래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별했음을 알 수 있다.

또 性愛의 장면을 노골적으로 노래한 작품도 대부분 생략하였다. 이에 대해 남창은 “옛날 사람들이 평소 기분으로 노래했던 것이고, 또한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 작품들을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네 수 쯤 번역해 보았지만 이들이 독자들의 혐오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출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

35) 손진태, 앞의 책, pp.30-31.

36) 손진태, 앞의 책, pp.30-32.

것들을 생략하였다”고 하였다.³⁷⁾ 또 남녀의 性器를 비유한 시어나 노골적인 표현은 고심 끝에 적당한 말로 바꾸어 번역하였음을 밝혔다.³⁸⁾

그런데 이와 유사한 양상이 최남선의 『가곡선』(1913)에서도 포착된다. 『가곡선』은 『가곡원류』를 토대로 하되, 性愛를 노래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집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초 ‘국민교양으로서의 시조문학’을 재구성하려 했던 최남선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³⁹⁾ 『조선고가요집』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교양독서물로서 편찬되었다. 남창은 조선의 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를 교양독서물 형태로 재구성하여 가곡의 선율에 익숙하지 않던 일본인 독자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선고가요집』을 편찬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시행의 구분에서도 드러난다. 『조선고가요집』에 번역된 평시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한 수를 6행으로 배열하였다. 2음보로 구성된 한 句를 한 행으로 구분한 것이다. 다음은 李滉의 「陶山十二曲」 言學 두 번째 수이다.

雷霆、山を破るとも
 聾者には聞えまい。
 白日中天に到るとも
 瞽者には見えまい。
 我々は耳目聰明な男子だけれど
 聾瞽のやらにねよらと思ふ。⁴⁰⁾

37) 손진태, 앞의 책, pp.31-32.

38) 손진태, 앞의 책, pp.32-33.

39) 신경숙, 「19세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한국고전문학회 제248차 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고전문학회, 2009.1.15, pp.10-15.

40) 원문은 다음과 같다. “雷霆이 破山하여도 聾者는 못 듣느니 // 白日이 中天하야도 瞽者는 못 보느니 // 우리는 耳目聰明 男子로 聾瞽 窺지 마로리”

中型의 노래는 대체로 8행으로 번역하였고 경우에 따라 7행 또는 9행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장가의 경우는 1장을 대체로 4행에서 6행으로 나누어 번역하였다.

남창은 시조 한 수를 6행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 “고려시대에도 예가 있고 (균여전 서문의 향가 참조) 現今의 시조 작자도 대체로 각 장을 6행으로 나누어 쓴다”고 하였다. 고려시대의 예는 『均如傳』 第八 譯歌 序文에 언급된 三句六名을 염두에 둔 듯하다. 시조를 6행으로 구분한 사례는 1908년 4월 10일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琴兮의 「歌曲改良의 意見」에서 처음 보인다.⁴¹⁾ 시조 작품을 이와 같이 6행의 시로 배열하는 형식 모형은 1920년대에 와서 보편적 모형으로 정착된다.⁴²⁾ 남창이 現今의 시조 작자도 대체로 각 장을 6행으로 나누어 쓴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한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와서 시조를 가창 텍스트가 아닌 玩讀用 시 텍스트로 인식한 결과이다. 남창 역시 시조를 문학 텍스트로 인식하고 『조선고가요집』 수록 시조를 6행으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남창은 시조부흥운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조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字數, 行數, 用語에 반드시 古型式을 고집하지 말 것을 주장한 바 있다.⁴³⁾

41) “第一章 人生이處世하니 // 충효가 으뜸이라 // 黃金갓튼 光陰을 // 伐齊爲名 虛送하니 // 於焉間 忠도 孝도 다못 하고 // 後世에무엇을”

“第二章 노지 마오 노지 마오 // 늙어지면 恨되나니 // 花無十日紅이오 // 달도 차면 기우나니 // 인생이 場春夢이라 // 늙기전에”

“第三章 靑山아 무려보조 // 古今事를 네 알니라 // 興亡盛衰는 只在人이오 // 不在蒼天이라함데 // 제 일을 제가 잘못하고 // 民양怨天”

강명관·고미숙 편 『근대개몽기시가자료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pp.210-211.

42) 홍성란, 「時調의 開化期時代 形式 轉變 樣相」, 『語文研究』 제136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07, pp.193-194.

43) 손진태, 「반드시 古型을 고집함은 퇴보」, 『孫晉泰先生全集』 6, 대학사, 1981, pp.641-642.

⑨에는 附錄으로 수록한 「還山別曲」, 「白鷗詞」, 「農家月令歌」도 이러한 관점에서 선별된 작품이다. 남창은 이 세 편만 부록으로 수록하게 된 경위에 대해 古來로 유명한 가사 작품으로는 정철의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 「星山別曲」, 宋純의 「俛仰亭歌」, 車天輅의 「江村別曲」, 李賢輔의 「漁父辭」, 李珣의 「樂貧歌」, 작자불명의 「玉樓宴歌」, 「春眠曲」, 「老人歌」, 「處士歌」, 「黃鷄歌」, 「梅花詞」, 「相思別曲」 등이 있지만 이들은 가사는 대부분 漢文 취향이 농후하고 街學的이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다지 맘에 들어 하지 않아 時調만큼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대부분 생략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송강가사」는 金萬重이 東國의 離騷라 평가한 것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읽어도 흥미로운 작품이지만 일본어로 번역하면 원문의 결을 제대로 살릴 수 없어 『조선고가요집』에 수록하는 것을 체념하고 결국 「還山別曲」과 「白鷗詞」만 취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農家月令歌」는 玩讀用으로 지어진 노래 가운데 유일한 대작으로 이 노래를 번역해서 잡지 『東洋』 1928년 8-9양월 호에 게재한 바 있지만 이 책에 수록된 것은 前間恭作에 의해 대부분 改削補正되었다 하였다.⁴⁴⁾

마지막으로 附錄 二에 作家略傳과 諸王在位年表를 수록하였다. 作家略傳의 경우 117인의 작가 정보를 수록하였다. 이 가운데 3인은 ‘不明’으로 처리하였다. 『歌曲源流』, 『靑丘永言』 등에 수록된 작가의 傳記가 극히 간략하여 유명한 인물들의 경우 『三國史記』, 『高麗史』, 『海東雜錄』, 『燃藜室記述』, 『海東名臣錄』, 『海東名將傳』 등을 참작하여 보완하였다고 밝혔다.⁴⁵⁾

44) 손진태, 「附錄歌詞三種に就いて」, 『朝鮮古歌謠集』, p.460.

45) 손진태, 「作家略傳に就いて」, 『朝鮮古歌謠集』, pp.511.

V.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歌集 轉寫와 『朝鮮古歌謠集』 편찬을 중심으로 南滄孫晉泰의 고전 시가 연구 활동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남창 손진태를 역사 학자나 민속학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본고의 논의 결과 고전 시가 연구에도 남다른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남창의 시조 문학에 대한 관심과 가집 전사 경위에 대해 살폈다. 남창은 시조를 민족사의 흐름과 같이하며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장르로 인식하고 이를 일본인 독자들에게 소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던 중 1925년부터 동양문고를 드나들면서 일본으로 유출된 고시조 문헌을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얻었고 이은상과 함께 1927년 6월에서 1928년 5월 사이에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던 歌集을 집중적으로 전사하였다.

본고에서는 남창이 이와 같이 가집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전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朝鮮古歌謠集』에 수록된 원전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전사하였다. 그리고 전사본을 토대로 『歌曲大全』과 같은 고시조를 집성본을 계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본으로 유출된 이 가집들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전사하여 국내로 가져가 고시조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사한 것으로 보았다.

우리가 남창의 가집 전사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고시조 연구에 요긴하게 활용되는 이 가집들이 일본으로 유출된 후 남창의 전사에 의해 비로소 국내에 알려졌다라는 사실 때문이다. 『고금가곡』과 『가사육중』은 유일본을 전사하였고, 동양문고본 『여창가요록』은 여러 이본 가운데 善本이다. 『女唱歌謠錄』과 『고금가곡』은 가람본과 도남본으로 재전사되어 국내에 소통되었다.

轉寫本의 주요 특징을 고찰한 결과 『고금가곡』을 제외하고는 원본을 충

실하게 전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창가요록』의 경우 원문에 있던 연음표를 붉은색으로 전사하였고, 면수와 행수까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송강사가』는 가사 작품의 경우 『고금가곡』에 수록된 판본과 대교하여 그 결과를 행간에 표시하였다. 『고금가곡』은 漢詩 辭賦와 과체시를 수록한 부분을 생략하고 「풍아별곡」부터 전사했던 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문학의 핵심적 가치를 순국문문학에서 찾으려 했던 남창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1929년에 편찬된 『朝鮮古歌謠集』은 전사한 가집을 바탕으로 편찬한 고시조 選集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고전시가를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본어로 번역해서 실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朝鮮古歌謠集』은 전사한 가집에 수록되어 있던 시조 558수를 선별하여 장가(사설시조)와 단가(평시조)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제별, 작가별 체계에 맞추어 새롭게 편집하였다. 장가와 무명씨 작품을 전면에 배치한 점이 이채롭다. 이는 시조가 가지고 있는 조선적인 정서와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이다. 이들은 대부분 俗謠에 가까운 내용을 가진 작품들로 이 가운데 중국적 사상과 감정에 물들지 않은 조선 고유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남창은 조선의 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를 교양독서물 형태로 재구성하여 가곡의 선율에 익숙하지 않던 일본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선고가요집』을 편찬했던 것이다. 가사를 3편만 부록으로 첨부하였던 것도 같은 이유이다. 남창은 가사 장르가 漢文 취향이 농후하고 街學的이어서 時調만큼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日本人들에 의해 우리의 고시조가 일부 日譯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1908년에 松尾茂吉이 『南薰太平歌』 수록 시조를 일부를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⁴⁶⁾ 또한 1921년에 細井肇가 通俗朝鮮文庫 시리즈 5권으로 編한 『懲毖錄/南薰太平歌』에도 시조 일부가 日譯되어 수록된 바 있

다.⁴⁷⁾ 하지만 한국인에 의해 체계적으로 작품을 선별하여 일본어로 번역한 경우는 『朝鮮古歌謠集』이 유일하다. 본고에서는 『朝鮮古歌謠集』의 시조 번역의 양상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하였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손진태, 『朝鮮古歌謠集』, 刀江書院, 1929.

손진태 저·최광식 편,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2-우리의 민속과 역사』,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歌曲源流』(손진태 전사본),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남창문고 소장.

『南薰太平歌』(손진태 전사본),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남창문고 소장.

『松江歌辭』(손진태 전사본),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남창문고 소장.

『歌辭六種』(손진태 전사본),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남창문고 소장.

『古今歌曲』(손진태 전사본),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남창문고 소장.

『女唱歌謠錄』(손진태 전사본),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남창문고 소장.

『靑丘永言』(육당본 謄寫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남창문고 소장.

『歌曲歌詞』(전사본), 서울대도서관 가람문고 소장.

『古今歌曲』(전사본), 영남대학교 도남문고 소장.

『女唱歌謠錄』(전사본), 영남대학교 도남문고 소장.

강명관·고미숙 편 『근대계몽기시가자료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松尾茂吉, 「南薰太平歌(1)」, 『朝鮮』 제1권 4호, 日韓書房, 1908.6.

細井肇, 『懲愆錄/南薰太平歌』, 自由討究社, 1921.

2. 논문

권순희, 「『古今歌曲』의 원본 발굴과 轉寫 경로」, 『우리어문연구』 제36집, 우리어문학

46) 松尾茂吉, 「南薰太平歌(1)」, 『朝鮮』 제1권 4호, 日韓書房, 1908.6.

47) 細井肇, 『懲愆錄/南薰太平歌』, 自由討究社, 1921.

- 회, 2009, pp.18-25.
- 서철원, 「『校註歌曲集』을 통해 본 20세기 고시조 향유와 전승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12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pp.67-89.
- 손진태, 「詩調와 詩調에 표현된 한국사람」, 『孫晉泰先生全集』 6, 태학사, 1981, pp.528-562.
- 손진태, 「반드시 古型을 고집함은 퇴보」, 『孫晉泰先生全集』 6, 태학사, 1981, pp.641-642.
- 신경숙, 「『女唱歌謠錄』 해제 및 영인」, 『한국음악사학보』 제16권, 한국음악사학회, 1996, p.253.
- 신경숙, 「19세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한국고전문학회 제248차 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고전문학회, 2009.1.15, pp.10-15.
- 최광식,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 활동-새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p.22.
- 최광식, 「『손진태 유고집』의 내용과 성격」, 『한국사학보』 제30호, 고려사학회, 2008, pp.257-258.
- 최남선, 「조선국민문학으로의 시조」, 『조선문단』, 제16호, 1926.5. pp.2-7.
- 허영진, 「남창본 『고금가곡집』의 실증적 재조명」, 『국제어문』 31집, 국제어문학회, 2004, pp.115-135.
- 홍성란, 「時調의 開化期時代 形式 轉變 樣相」, 『語文研究』 제136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07, pp.193-194.
- 황인완, 「『가곡원류』의 이본 계열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45-47.

Abstract

Namchang(南滄) *Jin-Tae Son*'s Transcription of Anthologies and His
Compilation of *Joseongogayojip*(朝鮮古歌謠集)

Kwon, Soon-Hoi

Although we remember that *Namchang, Jin-Tae Son*(孫晉泰: 1900-?) was a historian or a folklorist, we could confirm that he was interested to do a research in classical poetry. In this thesis, I reconfigured *Namchang, Jin-Tae Son*'s research in classical poetry through his transcription of anthologies and compilation of *Joseongogayojip*(朝鮮古歌謠集).

First of all, I researched *Namchang*'s special interest in *sijo* and the circumstances of his transcription of anthologies. I have found that *Namchang* recognized *sijo* was the best genre to express the Korean race's thought and emotion. He had a plan to introduce to Japanese. Meanwhile, he got an opportunity to look through the classical *sijo* texts from 1925 since he had visited frequently *The Toyo Bunko*(The Oriental Library). The texts were drained from Korea to Japan. He and *Eun -Sang Lee* transcribed intensively the *The Toyo Bunko*'s collection of anthologies from June 1927 to May 1928. We especially pay attention to *Namchang*'s transcription of anthologies because these anthologies which are very useful for our current research of classical *sijo*. Those were introduced to Korea through *Namchang*'s transcription.

And then I studied the transcribed texts' main characteristics. Especially, *Yeochanggayorok* was transcribed the *yeoneumpyo* into red color mark and made the page and line numbers are one and the same. And *Songganggasal*'s original text was *Seongju* version. He made notes between lines in *gasa* after comparing *Seongju* version with *Iseon* version which was included in *Gogeumgagok*. We can understand that *Namchang* tried to find our

literature's core value in vernacular literature because *Gogeumgagok* was transcribed from "Pungabyeolgok" omitting the *Cifu* (辭賦) and examination style poetry. *Joseongogayojip* was compiled in 1929. It is an anthology of classical sijo and based on the transcribed anthology. Most unique thing is that those were translated in Japanese to let Japanese people know. *Joseongogayojip* contains 558 pieces of sijo selected from transcribed anthology. He classified *jangga*(*saseolsijo*) and *danga*(*pyeongsijo*), and unique thing is that *jangga* was listed prior to *danga*. This is the result of his efforts to deliver sijo's Joseon emotion and value to readers. In a word, *Namchang* compiled *Joseongogayojip* to introduce sijo to Japanese readers. He reorganized sijo which was Joseon's national literature into the educational reading because Japanese readers were not familiar with *gagok*'s melody.

Key words : *Namchang*(南滄), *Jin-Tae Son*(孫晉泰), anthology, transcription, *Joseongogayojip*(조선고가요집), sijo

權純會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전화번호 : 043-230-3551(연구실), 010-3450-2293(휴대전화)

전자우편 : ksh0225@knue.ac.kr

이 논문은 2009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5월 13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9년 5월 13일 게재 확정됨.
